

# 보험산업

## 실손 청구 간소화, 장기적으로 실손 손해율 개선 기대

Analyst 정준섭 02)768-7835, junsup@nhqv.com

###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

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(보험업법 개정안)이 국회 법사위에 이어 전주 금요일(10/6) 본회의 통과. 지난 '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발의된 지 14년 만임. 법안은 공포 1년(30병상 미만 의원급은 2년) 뒤 시행 예정

현재는 환자(보험 계약자)가 직접 팩스, 설계사, 앱,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음.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 이후부터는 의료기관→중계기관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보험개발원)→보험사로 청구서류 제출 과정이 전산화되며,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함. 즉, 환자는 번거로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

지금까지 복잡한 청구 절차 때문에 미청구된 보험금(주로 소액 청구건)이 연간 2~3천억원에 이르는 만큼, 법안이 시행되면 이 정도 규모의 보험금 청구는 증가할 전망

### 과잉진료 축소와 비용 효율화로 실손 손해율 개선 기대

얼핏 보면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는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에 악재처럼 보일 듯 하나, 실제로는 반대임.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업계(특히 손해보험업계)의 숙원 사업 중 하나

실손의료보험은 대표적인 보험사 적자 상품으로,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과 의료계 과잉진료가 가장 큰 원인.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, 수많은 비급여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어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됨. 게다가 업무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도 예상되는 만큼,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증가 이상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음

법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잉진료 축소, 실손 손해율 안정화로 보험사 예실차 개선에 기여할 전망. 생명보험사보다 실손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에게 더 큰 수혜가 예상되며, 손보사 중에서도 실손의 이익 민감도가 높은 보험사(현대해상, 한화손해보험)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

**종목 투자등급(Stock Ratings)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**

1. 투자등급(Ratings):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

- Buy: 15% 초과
- Hold: -15% ~ 15%
- Sell: -15% 미만

2.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. (2023년 10월 6일 기준)

- 투자 의견 분포

Buy	Hold	Sell
82.2%	17.8%	0.0%

-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투자 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Compliance Notice**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'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'의 발행주식 등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**고지 사항**

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